**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로마서 12장 1-2절>**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이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에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교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선교적인 책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역시 선교적 성격이 강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로마서를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저는 선교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성격이 강한 뒷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부분을 이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다음의 일들을 함께 실천해가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일단 “몸을 드린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A.D.1세기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아, 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확연히 구분짓고는, 전자는 선하고 후자는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비한 영적 지식을 많이 얻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때문에 몸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 심지어는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될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었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33년간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수난을 겪으셨고, 그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가, 마침내 그 몸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왜 구태여 그 아들의 몸을 통해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원하는대로 사는 것을 두고 우리 몸을 귀히 여기는 일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만 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은 파탄에 이르고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욕주의자들처럼,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모두 무시하고 금지하는 것을 일컬어 우리 몸을 귀히 여기는 일이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몸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섬기며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언제나 내 몸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눈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생각처럼, 단순히 구원을 위한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순종’과 ‘충성’의 의미를 포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긍휼과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선교적 삶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그곳은 미지의 어느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일상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 삶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의 ‘몸’이란 단어를 ‘삶’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곧 내 몸이 놓여진 시간과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내 삶을 내 몸이 원하는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매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구별하여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수님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부분은 ‘합당한 예배’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의미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또한, 내 삶의 매순간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에, 그것은 또한 ‘영적 예배’임에 틀림없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서있던 자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이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영역 속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늘 다시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와 하나님의 뜻이 자주 충돌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네 인생은 네 것이니 네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전6:20).

물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물질을 더 쌓는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데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틀어진 진리에 기대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편승하여 좀 더 편하게 살려 하는 일이 우리 중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1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분별의 삶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풍조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도가 늘 첫 자리에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적 삶은 기도 가운데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린 일상은 이처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천 년 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선교를 이루어가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선교의 열매인 우리들을 통해 계속 그분의 선교를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PTML 선교훈련을 위해 한국에서 온 두 청년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선교적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본인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자기 돈 들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노는 셈 치고 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인가?

세상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앞으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고,

흩어지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나가야 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갈 때, 이 체코의 교회와 사회에도 작지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교적 부르심을 함께 마음에 품고,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내어드리며,

매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1분 정도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행하며 살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전영역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자리로 내어드리고,**

**언제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PTML 선교훈련을 시작하는 청년들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